

안전, 때로는 무거운 짐

돈이켜 보면 가장 보람된 일
KUMHO
PETROCHEMICAL



전남 여수시 화차동에 위치한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정밀화학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섭 과장은 이곳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위해 방화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책임자, 냉동안전관리책임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사업장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4년 반평생 안전과 함께 걸어온 그는 이제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전하고자 후학 양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정밀화학 이재섭 안전관리자
취재 | 임재근 기자

독학으로 시작한 안전관리자의 길

올해로 신일곱의 이재섭 안전관리자는 1979년 스물다섯의 나이로 이곳 금호석유화학(주)에 현장 운전원으로 입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간산업으로 석유화학산업육성을 위해 여수에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고 대대적인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장기산업의 일종인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운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제품 생산이 되었으나, 화학물질과 유독가스의 다량 사용은 언제나 폭발과 화재의 위험을 내포한 위험한 업종이었다. 특히 당시는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시기여서 안전사고발생이 자주 일어났고, 이러한 사고는 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이재섭 안전관리자 또한 직접적으로 많은 사고를 경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화학설비와 공정안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운전원으로 8년을 보내면서 독학으로 산업안전기사, 방화관리, 고압가스관리, 냉동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1987년 지금의 정밀화학공장이 설립되면서 안전관리자로 자원하여 안전과 인연을 맺었다.

자부심과 노력으로 최고의 안전관리자로 거듭나

안전관리자로 업무를 시작하던 1987년, 사회적으로나 기업에서나 안전관리자는 그리 크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안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안전이라는 일이야말로 근로자의 생명과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며,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 업무에 임했다. 운전원으로 8년간의 경험은 공정을 이해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수많은 공정에 대한 이해와 각 공정



PS 안전관리 24년, 길다고 할 수 있
 지만, 안전이 라는 단어가 보편적이지 않다면
 안전이란 산업을 위한 태동
 현장의 중심에서 안전관
 리가 안전이 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안전을 받기 못한
 지만, 안전을 지키는 소중
 한 생명을 지키는 소중
 한 생명을 지키는 소중
 한 생명을 지키는 소중

◀ 왼쪽부터 조성우 기사, 이재삼 안전관리자, 정혜리 사원, 장영호 팀장, 이종호 기사

에서의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담당자 못지않은 관련 위험물질과 공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며 공부를 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예방을 가능케 해

고도의 기술집약적 장치 산업인 정밀화학공장에는 크고 작은 위험이 많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와 폭발방지이다. 현재 공장에는 최첨단 DC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자동설비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샘플링 채취, 설비세정, 설비보수 및 유지 작업 등 위험작업이 연간 1,000여 건에 달해 한시도 방심하면 안된다. 이러한 위험극복을 위해 이곳에서는 라인-스태프 안전관리시스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 설비의 보수와 유지는 협력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환경안전팀에서 직접 교육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사고는 공학적 측면에서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광란상태라고 보고 에너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안전과 걸어온 세월, 인생 제2막 : 도약을 위해

안전업무에 매진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 화학업종 최초 무재해 5배를 달성하던 순간이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1993년 7월 무재해 달성으로 노동부장관 금탑을 수상했던 영예는 안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매진해 온 그의 인생에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또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게 된 초기, 신설설비의 공사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혼자 안전관리업무는 물론 환경관리업무까지 도맡아 수행하면서 많은 마찰로 인한 고뇌의 시간은 한편으로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는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이 안전에 있어 기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시에 잘 따라준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안전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 기쁜 때가 더 많았다고 회고한다.

그는 이제 30여년의 현장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새롭게 후학양성을 위해 대학 강단에 서게 되었다. 정년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서막을 열게 된 그는 선배안전관리자로 그동안 축적된 안전분야의 실무지식과 이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평소 안전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해온 만큼 안전에 대한 기초를 잘 다져 후배들이 장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진정한 안전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